

지역의 전통문화 꽃피운 명인·명장들의 삶 재조명

'장인의 길' 토크콘서트로 묻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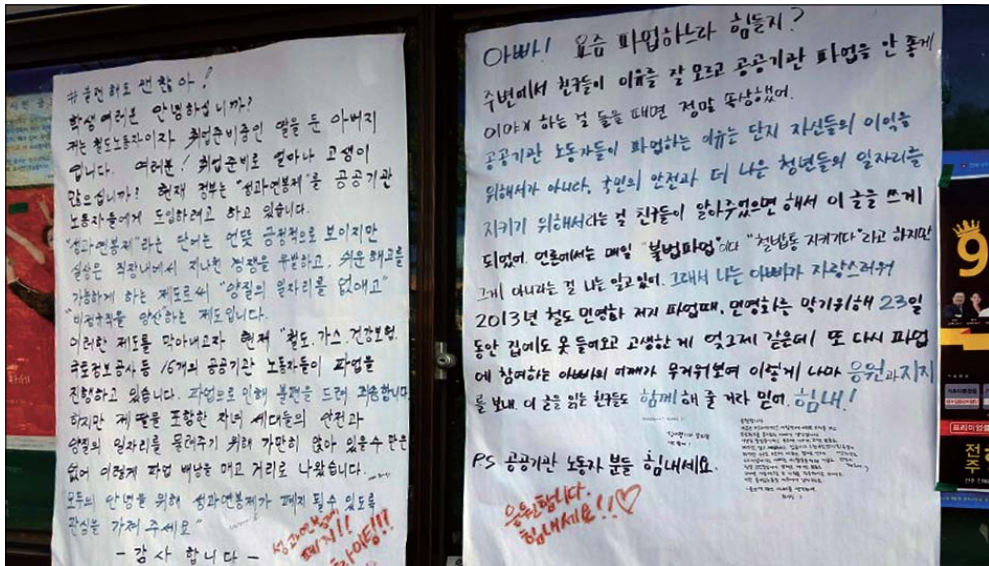
지역의 전통문화를 꽃피우는 데 한 평생을 바친 명인·명장들의 삶이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토크콘서트를 통해 재조명된다.

한국전통문화재단(원장 김동철)은 지역의 우수 명인·명장을 대상으로 과거와 현재의 삶을 재조명하고,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다지기 위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장인(匠人)의 길'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스터 리더십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 명인·명장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영상, 사진, 구술기록 등 DB구축을 통해 그들의 기술과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내달 4일 진행되는 토크콘서트 첫 순서에서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약기장(가야금) 고수환 선생을 초청, '장인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인의 일대기와 허심탄회한 속마음도 엿보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명인·명장을 바라보기 위해 신문문 우석대 교수(前 시립극단 상임지휘자)의 전문가 평가와 장인이 직접 만든 가야금을 제작업체의 연주로 감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성과연봉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있다. (사진=전주시민 제공)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도내 한 대학교에 파업 관련 대지보가 붙여져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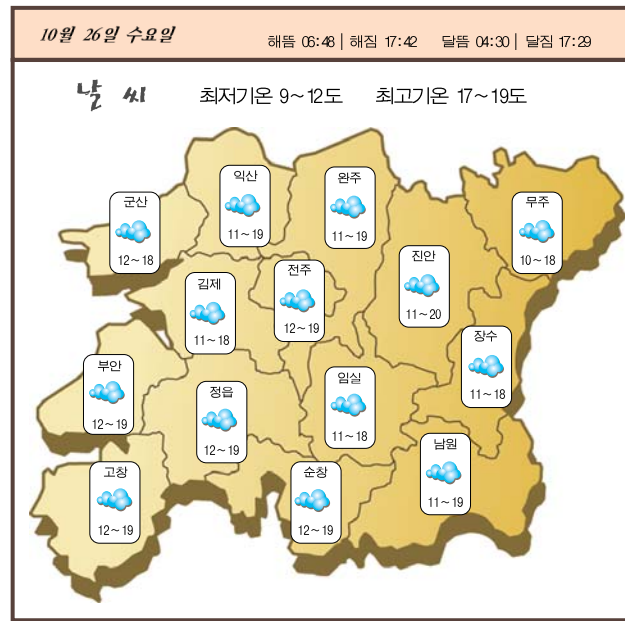
관련다

이울러 장인으로부터 제작 기술을 전수 받은 전수자 고성운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전수자의 삶' 코너를 통해 전수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자리를 마련했다.

'장인의 길' 토크콘서트는 11월 4일 오후 2시 전당 5층 옥상 '히늘미루'에서 개최되며, 두 번째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12월에는 무형문화재 제13호 '웃칠장 이의식 선생' 편도 준비하고 있다

김동철 원장은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역의 명인·명장들이 대중 앞에 나서 당시들의 훌륭한 업적들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독일 대학, 오프캠퍼스 등 협력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독일 대학 및 산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 해외파견 프로그램인 '오프 캠퍼스(Off Campus)' 지평을 넓힌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과 보직교수들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튀빙겐대학교와 뮌헨대학교를 방문하여 양교 간 오프 캠퍼스 프로그램 구축과 학생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튀빙겐대학교 한국어학과 및 한국학센터는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한 센터로 전북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과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이 총장 일행은 또한 재독한인총연합 김윤제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독한인들을 위한 필링 코리아 한국문화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소개 등 대학과의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세계적인 섬유회사인 칼 마이어 회사 및 공장과 산립청을 방문하여 전북대 학생들의 섬유 및 입업, 환경사업과 관련된 신화학력 확대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델베르크대학 주변 '철학자의 길'을 직접 걸으며 전북대 캠퍼스 명품 물레길 조성과 스토리텔링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도 진행했다.

이남호 총장은 "오프 캠퍼스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독일 지역 대학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학생들이 모험생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대학과 독일 지역 우수한 능생명 산업체 간 신학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성과"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동물원, 쌍둥이 시베리아 호랑이 '천둥·번개' 결정

전주동물원의 새로운 가족 시베리아호랑이 쌍둥이 형제의 이름이 천둥·번개로 결정됐다.

전주동물원(원장 김두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인 시베리아호랑이 쌍둥이(수컷 2마리)의 탄생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공모를 실시하고 5일 간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쌍둥이 시베리아 호랑이 이름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이름공모에서 접수된 총 142건의 작품 중에는 위풍·당당, 호형·호제 등 한자형제의 이름이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가운·누리 등 의미 있는 순 우리말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동물원은 접수된 이름 중 자체심사를 거쳐 천둥·번개, 아롱·다롱, 영

시민들 대상 이름공모 실시 5일 간 모바일 투표 진행

웅·호걸, 호돌·호식이를 1차로 후보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4개 이름에 대한 시민들의 모바일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32%의 득표율을 기록한 천둥과 번개를 이름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천둥·번개는 현재 동물원 내 새로운 호랑이에서 어미의 초유를 먹으며 어미와의 유대관계를 쌓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물원은 하루 5~6번 이상 천둥·번개의 상태를 관찰하는 등 집중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집중관리기관을 거쳐 내년 1월 말 엄마와 함께 아기호랑이를 공개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낚고 비좁은 호랑이·사자사 시설개선을 통해 수목을 이용한 차폐를 설치하는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관람이 가능한 물입전시법을 도입해 호랑이에게는 인락함을, 관람객들에게는 집중도 높은 관람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의 합정을 폐위 호랑이들이 두 배 이상 넓은 공간에서 뛰어놀 수 있게 만들었다.

새롭게 바뀐 호랑이에서 국제멸종위기종인 쌍둥이 시베리아호랑이가 태어나면서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동물원을 동물

과사업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태 동물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온 늑대들은 늑대사 신축을 통해 내년 5월이면 약 2,600㎡ 규모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고, 오는 12월부터는 최창살과 시멘트 바닥 등 전주동물원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슬픈동물원을 상징해온 곰사를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이번 쌍둥이 호랑이 이름공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만큼 시베리아 호랑이의 보전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의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하가지구 새 초등학교 이름 '전주하가지' 결정

내년 3월 전주 하가지구에서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이름이 '전주하가지 초등학교'로 정해졌다.

2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28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뒤 교명 제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를 비롯한 전주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수렴한 결과 하가지초는 당선작 없이 정식 교명으로 선정됐다.

전주하가지초는 지역 지명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병설유치원 3학급을 포함한 40학급

의 규모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또 내년 3월 문을 여는 완산구 효자동 소재 가정봉곡초 이름을 공모작 중에서 선정한 '전주새연초등학교'로 정했다.

'새연은 우리말로 '새롭게 연다'는 뜻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사랑이 되다'는 의미다. 전주새연초는 24학급 규모다. 선정된 교명들은 다음달 중 제출 예정인 전라북도립대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전북도의회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고민형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부모님도 만족하고 자녀들도 찬성하는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가입비 폐지, 이자율 인하, 가입대상 확대, 월 지급액 증가

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땅이 드리는 평생월금 부모님께 효도하는 농지연금

소유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연금보장 임대를 통한 추가소득도 가능

상담문의 063)540-1141~1143